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POLICY BRIEF | 20 – 04K

사회적 재생산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Elissa Braunstein, Colorado State University
Stephanie Seguino, University of Vermont
Levi Altringer, Colorado State University
Translated by Sung Ah Bahk
CWE-GAM Working Paper Series: 19-02

POLICY HIGHLIGHTS

–젠더화된 돌봄 제도는 경제 발전과 성장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지역사회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인적역량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 경제 성장과 사회적 재생산이 서로를 보강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양성 평등한 임금은 인적역량 투자와 총 수요를 강화시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 때, 공공기관의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통해 인적역량 생산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경제 성장에 비효율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재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 성장과 사회적 재생산이론 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규범과 선호가 거시 경제 구조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어떤 경제적 결과로 나타나는지 연구한다. 또한 성장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과 재생산의 성별 분배, 그리고 공공 부문과 자본시장간의 분배에 따른 경제적 성장을 예측하고 평가한다. 이 모형을 통해 성불평등이 사회적 재생산과 경제적 성장 모두를 저해할 수 있음을 보인다. 돌봄 서비스의 규모와 질이 각기 다른 국가 자료를 실증적으로 비교연구한 결과, 많은 국가들이 저성장, 불안정 성장을 야기하는 사회적 재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돌봄과 사회적 재생산

돌봄(care)은 노동 과정 자체이자 노동의 생산물이다. 노동의 과정으로서는 돌봄을 받는 사람과의 개인적, 감정적 상호작용을 동반하며, 또한 노동의 생산물로서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고 노동 인구 유지에 기여한다. 사회적 재생산이란, 노동인구를 생산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시간과 재원을 말한다. 때문에 사회적 재생산은 개인적 책임일 뿐 아니라 공공과 시장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각 사회마다 돌봄과 사회적 재생산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어떤 국가는 노동인구 유지에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자하는데 반 해, 어떤 국가는 노동력 생산의 측면에 많은 공공적 관심을 쏟지 않는다. 위 차이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사회적 선호, 개인적 취지, 이상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성역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POLICY BRIEF | 20 – 04K

사회적 재생산 체제

사회적 재생산 체제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누고, 성장 회귀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각 범주에 해당하는 국가의 재생산 지표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1. 시간압박 (TIME SQUEEZE) 체제

위 제도 하에서 여성의 임금 향상은 소비자 수요와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효과적인 돌봄 부문의 부재로 인하여, 향상된 경제 생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시간압박을 유도하여, 인적역량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성장도 불안정해진다. 시간압박 체제에 속하는 국가에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스페인이 있다.

노동에 대한 정의

노동은 생산활동을 가능케 하는 요소이며, 여성과 남성이 돌봄과 같은 무급 혹은 유급 노동을 함으로서 재생산에 참여한다. 동시에 노동은 양과 질을 포함한 인적역량(human capacity)으로 정의된다.

2. 상호적 (MUTUAL) 체제

효과적인 돌봄 부문의 발전 하에 여성임금향상이 경제성장, 사회적 재생산, 성 평등을 고루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위 세가지 요소가 선순환 되는 win-win 체제 이다. 상호적 체제에 속하는 국가에는 영국, 프랑스,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가 있다.

3. 착취 (EXPLOITATION) 체제

착취 체제 하에서 여성의 임금 향상은 사업체의 비용 상승요인으로 기업의 투자를 저하 시킨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인적자본 투자 상승분보다 기업의 투자 하락 효과가 더 크며, 시간압박 체제와 같이 여성의 노동 시장참여가 결국 사회적 재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착취 체제에 속하는 국가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사이프러스가 있다.

4. 임금압박(WAGE SQUEEZE) 체제

임금압박 체제란 여성임금향상이 인적역량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그 영향이 기업의 투자, 이윤, 그리고 경제 성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보다 작아 단기적 여성임금향상이 지속적인 소득수준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 위 체제 하에서는 성평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금압박 체제에 속하는 국가는 독일, 아일랜드, 그리고 네덜란드 등이 있다.

경제 성장에 대한 함의

노동 시장 내 향상된 성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여성 임금 향상과 노동 시장참여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나, 동시에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경제성장과 사회적 재생산, 그리고 노동 시장에서의 성평등의 선순환이 가능하지만, 항상 최선의 결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돌봄서비스와 같은 보완 정책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Brief prepared by: Elissa Braunstein, Stephanie Seguino, Levi Altringer andCatherine Hensly. Translated by Sung Ah Bahk
CWE-GAM Working Paper 19-02: Estimating the Role of SocialReproduction in Economic Growth